

# 유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은자\*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e-mail : abbigale@naver.com

## Impact of children's experience with culture and arts education on their adult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Eun Ja Koo\*  
\*Dept.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유년기에 경험한 문화예술교육이 성인이 된 후 문화예술참여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어린 시절 문화예술(미술, 음악, 연극 등의 예술교육, 공연관람 및 참여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문화예술 활동(예술관련 취미활동, 관람, 학습활동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와 미래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나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현재에도 문화예술 취미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현재의 삶의 질과 미래의 삶의 질 모두에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 1. 서론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어느 날 갑자기 소득수준이 높아졌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다. 앨런 앤드리슨(Alan R. Andreasen, 1998)이 공연예술수용과정(performing arts adoption process)모델에서 밝혔듯이 문화예술은 수용하는 과정에 따라 개인들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의 단계로 발전해 간다. 또한 관심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관객은 거의 현재의 참여관객층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문화향유 경험률은 2008년 이후 큰 폭의 증감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향유 경험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향유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객개발 정책이나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은 과거와 달리 예술가들만이, 혹은 소수만이 즐기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최현목, 2008; 차재근, 2007; 고경화, 2006)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유년기 문화예술경험이 현재 문화예술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현재 문화예술참여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유년기 문화예술경험과 현재의 문화예술참여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 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참여' 와 '삶의 만족'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제안했던 문화교육운동의 의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정책으로 문화운동의 확산과 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표 2] 가설검정 결과의 요약

가설	가설내용	가설 결과
1	어린 시절 문화예술의 경험이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이 미래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현재의 문화예술 활동이 경험이 현재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어린 시절 문화예술의 경험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어린 시절 문화예술의 경험이 미래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어린 시절 문화예술의 경험이 현재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갖고 있다.(이동연, 2008)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예술교육이 안고 있던 문제점 즉, 기능위주의 교육, 예비예술가를 위한 교육, 학습자와 일상생활과의 괴리 등을 극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상 세계의 삶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적 삶을 위한 예술교육으로의 방향 재설정 을 요구한다.(박정애, 2008; 정연희 2009)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과 함께 설명 되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 하는 안녕·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행복감, 안녕 감, 만족감, 좌절감, 실망감)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개념”(한혜원, 2000)이기도 하며, 다른 연구에서도 삶의 질에 대해“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삶의 질”로 설명하 기도 한다.(김은미, 2004)

삶의 만족도란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정도를 말하기도 한다.(최성재, 1986)

최현목(200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다.

‘문화예술참여’에 관한 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잘 나타나있으며 예술행사 직접관람, 문화시설이용, 문화행사 참여, 그리고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교육 참여 등 문화향유 경험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에서 수행하는 ‘대중의 예술참여 조사(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SPPA)’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 되었다.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에서 예술활동은 재즈, 클래식 음악공연, 오페라, 연극, 발레 공연관람,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방문의 6개 활동에 참여하는 지 여부였다. 하지만 국립예술기금은 예술참여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자미디어를 통한 예술참여와 개인 적 예술창작을 포함한 확장된 스펙트럼을 적용하기

[표 1]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요인	설문문항	요인 적재치	누적 분산비율	신뢰성 계수	
문화예술경험	유년기 학교밖경험	어릴때부터 배움(미술, 음악, 무용 등)	.808	27.315	.797	
		어릴때부터 감상(공연, 축제 등관람)	.881			
		어릴때부터 접함(가족내, 취미활동 등)	.761			
문화예술 참여	현재참여 활동	평소에도 문화예술을 좋아함	.720	36.306	.825	
		취미활동(미술, 음악, 연극, 기타)	.722			
		관람활동(공연, 미술, 축제 등)	.841			
		학습활동(교양강좌, 문화센터 등)	.778			
		직접활동(연주, 전시, 공연, 제작 등)	.650			
삶의 만족도	앞으로 전망	앞으로 좋은일	.800	28.097	.841	
		앞으로 희망	.811			
		앞으로 가치	.789			
		할만한 일이 많음	.615			
	현재 삶의 평가	현재삶의 평가	세상사가 좋아짐	.751	42.819	.921
			현재행복	.781		
		현재만족	.845			
		기쁜일 많음	.842			
		요즘 즐거움	.810			
		다복하게 느낌	.742			

로 결정하였다.(국립예술기금 보도자료, 2011)

### 3. 실증분석

#### (1) 표본의 구성,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및 분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유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문화예술참여,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의 연구문헌을 토대로 <표1>과 같이 문화예술교육 경험, 문화예술참여, 삶의 만족도(최성재, 1986)에 대한 요인들을 선정하여 5점 척도에 의해 조사하였다.

홍성지역의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일반인들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정리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대일 면접방식에 의해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200매의 설문지 중 168개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0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요인간의 특성과약을 위하여 varimax방식으로 직각회전 시켰다.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 (2) 표본의 특성과 신뢰성 분석

설문지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접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는 관객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50대 6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졸업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 순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을 접하는 관객의 소득수준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도 여유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결과 및 시사점

첫째, 유년기 경험이 현재의 문화예술 참여에 높은 설명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시절 경험은 현재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화예술을 취미활동 등으로 실현하거나 관람 및 학습 등의 형태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어린 시절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는 낮은 설명력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셋째, 문화예술과 관련한 현재의 문화예술참여 활동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이나 직접 활동, 관람, 학습 등을 통한 직접 참여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도 높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을 접하고 현재의 꾸준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전생애 걸쳐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예술을 직접 실현하거나 창작하는 보다 예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기덕(2007).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학술지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pp.369-388
- [2] 김세준(2005). 학술 예술교육정책을 위한 미국연방예술기금 운영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